

# 함평군, 여름철 피서객 맞이 준비 마쳐

## 돌머리해수욕장·엑스포공원 물놀이장 오는 5~6일 본격 개장

‘친환경 생태관광의 메카’ 함평군이 여름철 피서객 맞이 준비를 마쳤다. 1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역 대표 하계휴양지인 돌머리해수욕장과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이 각각 오는 5일과 6일 일제히 개장한다. 지난 2016년 전국 청정해수욕장 20선에 선정되기도 한 돌머리해수욕장은 깨끗한 갯벌, 아름다운 낙조, 상쾌한 소나무숲이 어우러진 전남 지역 대표 피서지다. 총 26km에 이르는 아름다운 해안선,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된 천혜의 갯벌은 재미와 휴식을 동시에 볼잡

고 해질녘 서해바다를 붉게 채색하는 낙조를 보는 이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 또 벤징어 잡기(7월 5일 16시/7월 27일, 8월 3일, 8월 15일 14시) 바지락 캐기, 갯벌생태체험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그야말로 안성맞춤이다. 특히 지난 2017년 돌머리지구 연안유류지 개발사업까지 준공되면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대폭 늘어났다. 안전상 바다임수가 쉽지 않은 어린이들을 위해 워터버킷, 워터슬라이드 등의 놀이시설을 갖춘 1,500평

규모의 어린이 놀이장 기간 중 상시 운영된다. 그 바로 옆엔 주변 해수를 끌어와 만든 2,300평 규모의 해수풀장이 있어, 서해안유류에도 밀물·썰물 구분 없이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숙박용 텐트, 오토캠핑장 내 카라반 등 숙박시설도 갖춘 돌머리해수욕장은 오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총 45일간 운영된다. 미취학 아이들과 함께하는 피서를 계획한다면 6일 개장하는 ‘함평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이 제격이다. 지난 2010년 문을 연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은 파도풀(782㎡), 유아풀(78㎡), 어린이풀(234㎡), 슬라이드풀(1,055㎡), 워터버킷(251㎡)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춘 가족형 워터파크다. 특히 이곳은 어느 물놀이장보다

깨끗한 수질로 정평이 나 있다. 2개의 정수시설이 하루 3000톤의 물을 끊임없이 정화해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또 시설규모에 비해 안전요원이 많이 배치돼 있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80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될 예정이며, 이 중에는 인명구조자격을 갖춘 전문구조요원도 2명 포함돼 있어 더욱 안전한 물놀이 환경이 조성됐다.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은 오는 6일 개장에 내달 15일까지 총 41일간 운영되며 이용요금은 성인(만 13~64세) 9000원, 소인(만 3~12세) 7000원,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입장은 오후 5시)까지다. 함평=김광춘 기자



## 장성군,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

장성군이 성(性)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강화하고 건전한 공직 문화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교육을 추진했다. 장성군은 지난달 28일 군청 아카데미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폭력 없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과 오후 4시간씩 진행된 이날 교육은 폭력예방교육 전문가인

김신희 여성긴급전화1366 전남센터 총괄팀장의 강의로 이뤄졌다. 김신희 팀장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설명한 후 이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 잡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폭력의 특성과 실태를 현장의 실제 사례를 들어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토론하고, 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방법과 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을 전달했다. 특히 공공기관 종사자가 성 평등과 인권존중 실천을 위해 팔이 숙지해야 할 실천방안을 중점적으로 강의해 큰 호응을 얻었다. 화순=박순철 기자

## 담양군, 가족과 함께하는 ‘금연 힐링 캠프’ 성료



담양군이 지난달 29일부터 1박 2일간 국립장성성체원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금연 힐링 캠프’를 금연하는 흡연자 가족 43명과 함께

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금연 힐링 캠프’는 신립청과 한국신립복지진흥원, 북권위원회에서 지원하는 ‘2019 나눔의 숲 캠프’에 담양군보건소가 2년 연속 선정, 국립장성성체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됐다. 이번 캠프에서는 금연 및 음주폐해 예방교육과 기초검진, 대사증후군, 개인별 성격유형검사, 레크리에이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이어 국립장성성체원에서 마련한 빌레퇴치제 만들기, 목제 카프라 쌓기, 스토리가 있는 가족역사 만들기 등의 체험도 함께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한 참여자는 “주변의 권유로 참석하였지만,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어 가족이 함께 왔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 이번 기회로 금연에 도전해 보겠다”며 참여 소감을 전했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가족과 함께하는 금연힐링캠프를 통해 가족 모두가 회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 보건소는 오는 5일 전남 금연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해 전문치료형과 일반형 금연캠프를 함께 운영 금연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많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 화순군, 친환경 농업인 의무교육 홍보

화순군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친환경 농업인의 불이익 예방을 위해 관내에서 진행되는 친환경 농업인 대상 의무교육 참석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가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친환경 농업인 의무교육이 화순 지역에서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열릴 예정이다. 교육 이수율

희망하는 농업인은 8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교육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토양·종자·재배 품질 관리 등 인증기준, 친환경인증 표시방법, 인증내용 변경신고 등 법적 준수사항을 안내하게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 장흥군, 벼 본답 해충 집중 방제 당부

적기방제 중요. 장흥군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친환경 제재단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먹노린재, 벼물바구미 등 해충의 예찰 및 방제를 당부 하고 나섰다. 먹노린재(일동해충)는 6월부터 본논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이 발생 최성기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에 전문약제를 살포해 적기방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바구미(월동해충)는 5월 중·하순경 논으로 이동, 6월 중순부터 유충 피해가 발생되기 시작하므로 발생초기에 등록된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최근 제주도 및 무안 등의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는 열대저세미 나방은 주로 벼 과식물(옥수수, 수수, 벼)에 피해를 준다. 어린옥수수(10엽기 이하)의 잎과 줄기를 가하고 열매를 파고 들어가 피해를 주므로 의심 개체 발견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하고 확인되면 신속히 방제해야 한다.

## 나주시, 서울서 농산물 판촉 행사 진행

나주시는 지난달 25일과 26일, 수도권 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 신도림역 일원에서 지역 농산물 신제품 시식 및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나주시 농어업회의소가 주관한 ‘우리농산물 더하기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자두와 살구 교배종인 ‘플러코트’를 비롯해 ‘블랙커런트’, ‘블루베리’, ‘아로니아잡’ 등을 도시민에게 선보였다. 특히 농산물 시식 후, 맛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설문 참여자들에게 플러코트, 블루베리, 블랙커런트

생과, 아로니아잡, 배즙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패키지 상품을 나눠주는 등 큰 관심과 인기를 끌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플러코트’를 처음 알았다’는 문항에 대상자 중 80.3%가 ‘그렇다’라고 했으며, 재구매 의사를 묻는 문항에는 98.5%가 ‘재 구매 의사가 있다’고 답하는 등 신제품의 맛과 효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플러코트 1.3, 아로니아 가공품 100여개 등을 판매하는 실적도 올렸다.

## 영광군, 우산근린공원 어린이물놀이장 개장

영광군은 우산근린공원 내에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장을 오는 6일 개장한다. 6일부터 8월 18일까지 44일간 운영되는 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개방되며 바닷물은 분부터 가을까지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13세까지이며 3세 미만은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면적 2,084㎡에 군비 12억을 투자하여 조성한 물놀이장은 7종의 놀

이시설, 바타분수 1개소, 그늘 쉼터, 간이 샤워시설, 탈의실을 설치했다. 화장실은 간이 화장실 대신 기존 공원 화장실과 동선을 연결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영광군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 중 15일 마다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요원 2명을 투입해 안전한 물놀이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